

## The Future VII

###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 1. 백부장의 믿음

[누가복음 7:7-10]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분량으로 말하면 가장 큰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으로 죽기 직전에 있었다. 결국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 주셨다. 우리의 질문은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믿음이라 칭찬하셨을까? 이 질문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다. 믿음의 본질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물론 이 질문에 모든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소개되어 있다.

#### 2. 말씀을 믿는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7절을 보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마태복음 8:8절에 보면 '~그 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새번역)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백부장처럼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는 것이다.

#### 3.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백부장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의 죽어가는 하인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생겨난 것이다.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바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미혹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의심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렸다. 나무에 숨는 존재가 되었다. 즉,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존재)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 이성, 감성 등을 믿겠다는 것이다. (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믿었던 자신의 능력은 그들에게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을 주어 그들을 흔들어 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 4. 감각적 믿음과 영적 믿음

나는 오늘 흔들리고 불안한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믿는 것이다.)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을 자신의 감각 위에 두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증명하는 감각에 내 믿음을 놓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믿음의 생성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말씀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유가 '마음 밭'에 대한 비유이다.

## 5. 나는 어떤 발인가?

[마태복음 13:18-23]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 (1) 19절 - 길가 (듣고 깨닫지 못한다)

지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아는 것이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한다. 성령님과의 인격적 친밀감이 중요하다. 성령님은 주석 책이 아니다. 단순히 책에 쓰여있는 문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2) 20절 - 돌밭 (감정으로 받음)

돌밭 역시 감정으로만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로 가지 못한다. 믿음이 감정 위에 있기 때문이다.

### (3) 22절 -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적 감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이다.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 없다.

### (4) 23절 -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삼십, 육십, 백배의 결실이 있는 진짜 믿음.

감각적 믿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생성원리가 23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상태가 좋은 밭이며, 그 밭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마음 밭이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바람을 가질 수 있다. 그때 그 바람이 현실이 된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절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겨난 영적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바라는 것들을 이미 실상으로 믿는 것이다.

\* '실상' (히포스타시스) - 증빙서류, 등기서류 (본질의 실체) 실체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

## 6. 십자가 위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뿌리로부터 오는 의심의 감각들(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비추어야 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의심의 감각들을 부인하며, 죽었다고 선포해야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게이트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때임을 명심하고,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